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미국 하원 특위 “중국은 펜타닐 생산·수출에 보조금”**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현지시간)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 “중국 정부가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 및 합성 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에 금전적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여러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마약 밀매 화학 회사를 보유한 중국 정부 교도소, 수천 건의 마약 밀매 사례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 상장회사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7개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명백히 관련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사례 3만 1천 건을 찾았다”면서 중국 정부 산하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상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의약 카르텔 NPP와 ANPP가 사용하는 두 종류의 펜타닐 성분에 최고 13%의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어 혼란과 황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펜타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 설립 ▲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무역 및 관세 관련 조치 시행 ▲ 자금 세탁 및 펜타닐 밀매에 악용되는 규제 및 법 집행 구멍 메우기 등을 촉구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신명기 18:12-13)**

하나님, 생명에 치명적인 펜타닐의 위험을 알면서도 제조를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 일에 개입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참담한 소식을 주께 고합니다. 자국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세계인의 몸과 영혼을 해치는 중국의 불법을 멈추게 하시고 이 일이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제어할 수 없는 마약 유통으로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 대해 미국 사회가 주님께 통회하게 하시고 교회가 미혹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 ▲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 ‘동성애 지지 목회자 모임’ 예정 논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를 앞두고 동성애 지지 목회자 모임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퀴어 목회자 간부회’는 오는 23일부터 5일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목회자들을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 장정(교회법과 규칙을 정한 책)은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 토마스 비커튼 감독은 간부회 자체가 장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누구나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 결혼 문제 갈등으로 인해 최근 7,500여 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출판사 ‘굿뉴스’도 교단 이탈을 준비 중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며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의 사명일진대 성경을 거스르며 미혹과 거짓된 변명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감리교단의 죄악을 책망하여 주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목회자들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마저 잃지 않도록 사탄의 계락을 파하시고 회개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양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예수 교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를 향한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 ▲ 브라질, ‘불법 이민자’ 시신 9구 실린 배 발견

브라질 북부 해안에서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실린 배가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연방경찰은 이 배는 지난 1월 17일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에서 출발해 서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로 항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해로에서 벗어나 대서양을 횡단해 브라질로 온 것으로 추정되며 2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해군에 따르면 이 배는 엔진과 방향타, 조정장치도 없었다. 서아프리카-대서양 항해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노선 중 하나로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2022년에만 최소 543명이 항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G1 등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연방경찰은 모리타니와 카나리아 제도 간 불법 이민이 성행하는 만큼 발견된 배 역시 불법 이민 범죄 조직의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담당 경찰은 “시신들이 모두 동일한 녹색 우의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 단체가 불법 이민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한 명백한 근거”라고 말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22)**

하나님, 여러 사연으로 더 나은 본향을 찾아 엔진과 방향타도 없이 대서양을 건너다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불법 이민이 성행하는 틈을 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범죄 조직을 꾸짖으시고 탐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복음으로 멸하사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이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슬람을 유일한 종교로 인정하는 모리타니에 움트고 있는 복음의 씨앗들을 기억해 주시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교회에 더하시어 이 땅에 그날을 소망하는 증인으로 세우소서.

## “내 아들들을 가두어 두지 말며 내놓으라” ‘내전 열세’ 미얀마 군부, 7년 전 학살했던 로힝야족 징집 나서



반군부 세력과의 내전으로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난민 징집에 나섰다. 군부가 반군의 공세에 계속 밀리자 7년 전 자신들이 학살했던 로힝야족을 병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BBC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로힝야족 남성 최소 100명이 징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 자녀를 둔 로힝야족 남성 모하메드(31)는 지난달 중순 난민촌 관계자가 찾아와 군

소집 명령을 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군대의 명령이다. 거부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두려웠지만 가야만 했다”고 모하메드는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동원된 로힝야족 남성들은 소총 사용법 등을 훈련받은 뒤 반군과의 전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는 “내가 왜 반군과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총을 쏘라고 하면 그냥 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라카인주 라테다웅에서 벌어진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과의 전투에 참여했고, 이 전투에서 최소 3명의 로힝야족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민주 진영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고, 저항 세력이 무장투쟁에 나서면서 내전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아라칸군 등 소수민족 반군이 가세하면서 교전이 더욱 확대됐다. 로힝야족은 2017년 8월 미얀마군의 잔혹한 학살로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BBC는 “군부가 로힝야족을 강제로 징집하는 것은 그들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라칸군과 로힝야족 간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며 “로힝야족이 최근 군부의 일원으로 내전에 참여하면서 군부와 반군 사이에 끼여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짚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이를 피하려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반군에 입대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포티파이라이츠는 “군부는 민주화 혁명을 막기 위해 학살 희생자들을 징집하고 있다. 오랜 잔학 행위의 역사 위에 이런 학대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이사야 43:2,5-6)**

하나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막는 군부로 인해 3년째 그치지 않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서 들려온 참혹한 소식 앞에 주께 엎드립니다. 자신들이 학살하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이제는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저들의 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강제 징집을 그치게 하옵소서. 오랜 학대로 고통받는 로힝야족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미얀마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를 만나는 로힝야족 되게 하소서.

### ▲ 독일, '낙태 금지' 조항 형법 삭제 추진...폴란드도 낙태 합법화 논의

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금지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폴란드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15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임신 중기 낙태도 합법화할 수 있다면서, 말기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보지만 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이날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연립정부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12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잠언 12:15,23)**

하나님, 잉태된 생명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엄마 뱃속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일에 대해 합당하다 여기며 법을 개정하려는 독일과 폴란드를 다스려 주소서. 자기결정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살인 행위를 옳게 여기지 않도록 두 나라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주님의 권고를 받아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생명을 경시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를 위해 주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진리로 싸워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 ▲ 중국, 구금된 반체제 인사 가족 탄압 심각...강제퇴거·정신병원 수용

중국이 구금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의 일부로 보인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가디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 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는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구금된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 정신병원이나 보육원에 수용하는가 하면 학령기 아동들을 자퇴시키고 출국금지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가 출소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은 작년부턴 거주하는 집, 호텔로부터 12차례 이상 쫓겨났고 아들(11)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인권활동가 허팡메이는 2021년 2월 구금되면서 그의 아들(11)은 위탁가정에 넘겨졌고 생후 한 달 된 딸과 4살짜리 딸은 친척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시편 72:1,4)**

하나님, 당국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세력과 관계자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앞길마저 짓밟아 버리는 중국의 교만하고 무정한 정책을 꾸짖어 주십시오. 위정자들의 마음을 악한 탐심과 정욕으로 사로잡아 무저갱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셔서 억울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과 함께 늘 핍박의 대상이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교회에 견실한 믿음을 주셔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시리아, 이슬람 세력 분쟁 13년...기독교인들 큰 고통 겪어**



시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한 13년간의 분쟁으로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이슬람 무장세력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의 공격은 시리아의 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3년 동안 시리아의 분쟁과 질서 붕괴로 인해 시리아의 기독교인 대다수가 시리아를 떠났다. 이德利브의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HTS)과 같이 여전히 알카에다 연계 단체의 통제하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타적 희생으로 그 땅을 섬기고 있다며,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2016년 희생됐던 파디(Fadi)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낙천적이고 신앙심이 강한 활기찬 대학생이었던 파디(Fadi)는 주일학교 리더로 봉사하며 교회 미디어팀에서 섬겼다.

분쟁이 지역을 휩쓸고 폭력이 거리를 황폐하게 하자 파디는 다른 많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무장 세력의 위험 증가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사명감과 신앙심에 이끌려 파디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슬람 무장세력 아이시스와 알카에다 같은 단체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폭로했다. 그는 납치, 처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등 이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두려움 없이 기록했다.

파디는 자신의 외딴 마을로 피해 있으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 마을로 일상적인 여행을 가던 중 이슬람 무장 세력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희생됐다. 그의 가족은 고문으로 훼손된 파디의 시신을 인계받았다.

이에 매체는 “파디의 이타적인 희생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며 “파디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몸소 실천했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2-14)**

하나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열매를 반드시 주님의 때에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더하는 극심한 박해로 대부분 신자가 조국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 있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악한 세력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 사랑이 시리아를 통해 온 땅에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인도 아삼주, 기독교인들 치유기도 금지법 통과

인도 아삼주에서 기독교인들의 치유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비인간적이거나 사악하거나 마법적인 치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아삼주 총리는 “이 법안은 아삼 내 전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지를 나타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기독교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된 ‘개종 금지법’ 도입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한 사역자는 “이 법안은 선교 사역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종교단체들에게 기독교인과 그 단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아삼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6)**

하나님, 한때 기독교인들의 안식처였던 인도 북동부의 끊임없는 박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 금지법안을 통해 사역자들과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아삼주를 다스려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도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사 교회를 통해 주의 크신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 ▲ 독일, 14세 이상 성별 스스로 결정

독일에서 14세 이상의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남성과 여성의 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20-22)**

하나님, 주어진 성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어리석고 악한 사상으로 법을 만들어 이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견고히 하려는 독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각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의 참자유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법 적용 대상의 연령을 낮추고, 절차를 쉽게 해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독일 교회가 이때 낙심치 않고 더욱 진리를 외쳐 못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